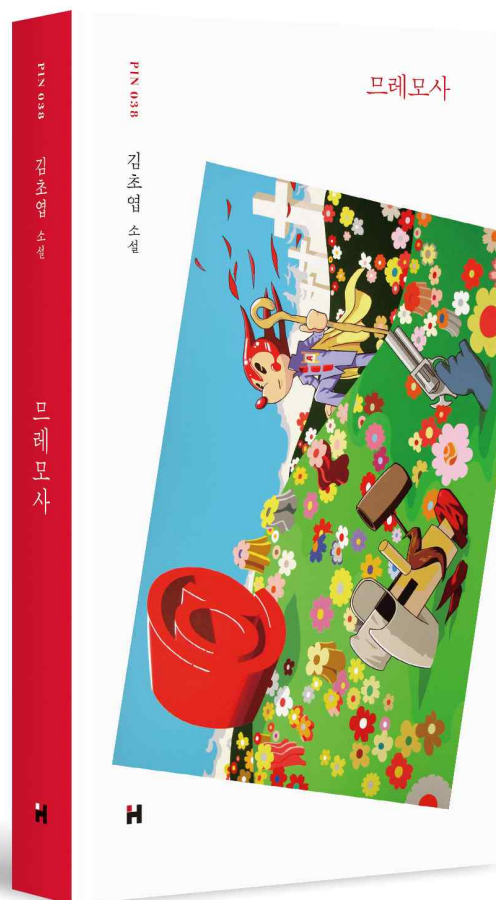


월간 『현대문학』이 매달 25일 발행하는 월간 핀 소설,
<현대문학 핀 시리즈 소설선> 038 출간!

김초엽 소설
프레모사



ISBN : 979-11-6790-082-1 04810 / 978-89-7275-889-1(세트)

한국 문학 / 한국 소설 / 104*182(양장) / 204면 / 14,000원 / 출간일 : 2021년 12월 25일

당대 한국 문학의 가장 현대적이면서도 참여한 작가들과 함께하는 <현대문학 핀 시리즈> 소설선 서른여덟 번째 책 출간!

이 책에 대하여

당대 한국 문학의 가장 현대적이면서도 참여한 작가들을 선정, 신작 시와 소설을 수록하는 월간 『현대문학』의 특집 지면 <현대문학 핀 시리즈>의 서른여덟 번째 소설선, 김초엽의 『프레모사』가 출간되었다. 2017년 <한국과학문학상> 중단편부문 대상과 가작을 동시 수상하며 화려하게 데뷔한 이후 탄탄한 구성력과 섬세한 문장, 확장된 세계관 등을 펼쳐 보이며 SF문학을 넘어 한국 문학의 새로운 지평을 연 김초엽의 이번 신작은 2021년 『현대문학』 3월호에 발표한 소설을 퇴고해 내놓은 것이다. 화학물질 유출사고로 인해 출입 금지구역이던 프레모사의 첫 관광객이 된 여행자들의 사연과 예상치 못한 진실들이 평온한 듯 보이지만 뒤집힌 환상의 도시 프레모사에 투영되어 입체적으로 그려진 소설이다.

2022년을 여는 김초엽의 첫 SF호러 소설 죽은 땅 위에 건설된 귀환자들의 마을이자 지구상 최후의 디스토피아 “당신도 프레모사의 귀환자입니까?”

데뷔 이래 단편집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면』 『방금 떠나온 세계』, 장편소설 『월통 안의 소녀』 『지구 끝의 온실』, 짧은 소설 『행성어 서점』을 발표한 김초엽은 SF문학을 넘어 한국 문학의 새 지평을 연 대세 작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특히 장애와 혐오, 소외되고 배제된 존재에 대한 사회적 시선, 실패한 삶에 대한 부정적 인식, 정상과 비정상의 낙인이라는 문제의식을 환상적이고 우주적인 세계로 풀어내며 대체 불가능한 김초엽만의 소설 세계를 점점 확장해나가고 있다. 『지구 끝의 온실』에서 덩굴식물이 빠르게 증식하는 폐허 도시의 미스터리를 파헤치다 고립될 위기에 처하는 등 다른 시공간의 이야기를 문제적 현실세계로 끌어와 독자들을 경이로운 순간으로 이끈 바 있는 그는, 이번 신작 『프레모사』에서도 환지중에 시달리는 주인공 유안을 내세워 외부에 공개되지 않았던 죽음의 땅 프레모사의 감춰진 진실과 예상을 뒤엎는 결말을 통해 독자들을 또 한 번 전율하게 한다.

유독성 화학물질의 대규모 유출 사고로 외부와 철저히 차단된 이르술의 한 도시 프레모사. 유령과 좀비의 땅으로 불리던 그곳에 초대받은 유안과 다섯 명의 방문객은 자신들이 그곳의 첫 방문객이 된 설렘을 감추지 못하지만 여행 첫날 밤, 옆방에 투숙 중인 레오에게 놀라운 이야기를 들은 유안은 혼란스럽기만 하다.

귀환자들을 앞세워 환대하는 프레모사에 점점 마음을 뺏긴 방문객들은 각자의 여행 목적은 잊은 채 그들의 함정에 빠지고, 유안은 모든 것을 극복하고자 그 고통과 씨름하지만 ‘한 번 들어오면 나갈 수 없는 곳’ 프레모사는 그를 쉽사리 놓아주지 않는다.

행위 없이 정지된 삶의 방식을 구원으로 삼은 주인공이 그 ‘숨겨진 마을’의 진실과 마주하게 되는, 디스토피아의 세계를 현실적인 인간사의 다양한 풍경과 함께 인상적으로 부각시킨 소설이다.

실은 이 디스토피아 역시 누군가에게는 유토피아였던 것이고, 「프레모사」는 “차가운 우주는 유토피아를 허용하지 않는다. 그곳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영원히 그리운 세계이다. 하지만 소설이 할 수 있는 일은 그 모순에 맞서며 다른 세계로 가는 길을 애써 상상해보는 것이라고, 이제 나는 생각한다”라는 김초엽의 말을 역설적으로 실천한 소설이 된다. 유안에게 영원히 그리운 세계란 환지통도 의족에 의한 통증도 없는 세계, 정상성에 대한 집착도 손쉬운 대상화도 없는 세계다.

-김겨울(유튜브 채널 「겨울서점」 운영자·「라디오 북클럽 김겨울입니다」 진행자)

지은이 김초엽은

1993년 울산에서 태어나 포스텍 화학과와 동 대학원을 졸업했다. 2017년 <한국과학문학상> 중단편 대상 및 가작을 수상하며 작품 활동을 시작했으며, 소설집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면』 『방금 떠나온 세계』, 짧은 소설 『행성어 서점』, 장편소설 『지구 끝의 온실』 이 있다. <오늘의작가상> <젊은작가상>을 수상했다.

작가의 말

팬데믹으로 여행을 갈 수 없는 상황이 되니, 온갖 여행 다큐멘터리와 영상 콘텐츠를 찾아보고 있다. 그 영상들을 보며 그리워지는 건 공항 가는 길이나 호텔 로비보다 오히려, 덜컥거리는 투어 밴을 타고 어디론가 향하는 순간들이다. 아침 짐걸지에 서의 첫 미팅, 낯선 사람들과의 합승, 어색한 시선, 불편한 자리, 밴 위에서 흔들리는 캐리어들, 구불구불한 비포장도로, 차 안의 갑갑한 공기, 네모난 창문 바깥으로 훤히 변하는 이국의 풍경들. 그 순간, 그 기묘한 긴장감으로 시작되는 소설을 써 봐야겠다는 결심에서 『프레모사』는 시작되었다. (……) 나는 이해의 실패로부터 발생하는 이야기들을 좋아하는데, 이것은 그 실패의 결과를 파국으로 밀어붙인 시도였다. 쓰면서 ‘아, 나는 이런 이야기를 쓰는 것도 좋아했었지’ 새삼스레 깨닫는 순간들이 있었다.

표4

인류에 던져진 진지한 물음

왜 재난을 그토록 재현하면서 반복하려 하는가?

프레모사에서 발생한 ‘재난’의 발생과 추이가 그려내는 풍경은 그리 낯설지 않다. 프레모사의 상황은 SF가 클리셰로 다루는, 아직 오지 않은 미래의 디스토피아는 아니다. 오히려 브

레모사의 재난이 불러일으키는 느낌은 ‘낯익은 두려움unheim unheimlich lich’이다. (……) ‘프레모사’의 서사는 재난 이후 트라우마와 더불어 혹은 진행 중인 재난과 함께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라는 문제로도 읽힌다. 하지만 이 소설의 서사는 자연재해, 전염병 등 재난의 파국을 극복해온 소위 ‘인류 문명사’를 반영하는 구원의 목시록적 서사와는 거리가 멀다. (……) 『프레모사』의 서사에는 사건으로서 그 일이 벌어진 과거 그리고 지금인 현재만이 있다. 이 두 시제를 오가는 반복에서 발생하는 차이의 역량이 『프레모사』의 서사를 작동시킨다. 그러기에 이 서사에 던져질 질문은, 재난의 과거는 사라지지 않은 채 왜 반복되어 ‘힘들의 지대’를 만들면서 재현되는가일 것이다. 아니다. 오히려 이렇게 물어야 할 것이다. 왜 재난을 그토록 재현하면서 반복하려 하는가.

-김은주, 「작품해설」 중에서

차 례

프레모사 9
작품해설 185
작가의말 200

본문 중에서

* 통제할 수 없는 속도로 확산되기 시작한 유독성 화학물질들. 그 물질들은 바람을 타고, 구름을 형성하고, 비를 내리며, 렘차카 특별 구역과 인근 도시들과 농작지와 식수원을 광범위하게 초토화해버렸다. 당국이 사람들을 대피시켜야 한다고 결정한 건 수돗물을 받아 마셨다가 이름 모를 질병에 걸려 죽어가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한 이후였다. (……) 순식간에 수십 만 명이 살던 터전을 떠나야 했고, 렘차카와 인근 산맥은 완전한 출입 금지 구역이 되었으며, 죽음의 땅, 인간이 밟을 수 없는 지역이 되었다.

-51쪽

* 유안이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망설이는 사이, 주연이 상쾌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사실은 알 것 같아요. 언니는 프레모사의 귀환자들을 만나러 온 거죠? 죽음의 땅에서도 다시 곳곳이 살아가는, 희망을 가지고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 정말로 좀비처럼 변했어도 뭐 어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간다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분명 우리가 귀환자들에게 배울 게 있을 거예요. 반대로 언니가 그 사람들에게 영감이 될지도 모르고요. 아, 언니랑 그런 인터뷰 할 생각하니까 벌써 너무 두근거리는 거 있죠?”

-70-71쪽

* “지금 당신은, 프레모사의 진실을 당신 같은 여행자만이 알아낼 수 있다고 말하는 건가요? 이곳 거주민들이 아니라?”

유안이 빈정거리는 어조로 물었다.

“꼭 그렇게 표현할 필요는 없겠지만, 비슷한 맥락이라고 할 수 있겠죠. 내 말이

불쾌합니까? 당신은 처음부터 다른 사람들이 프레모사를 대하는 태도를 불편해하는 것 같더군요.”

-79-80쪽

“도움을 베풀러 왔고, 구경하러 왔고, 비극을 목격하러 왔고, 또 회복을 목격하러 왔어요. 그래서 실컷 그렇게 할 수 있게 되었잖아요, 행복한 결말 아닌가요?”

-179쪽

월간 『현대문학』이 펴내는 월간 <핀 소설>, 그 서른여덟 번째 책!

<현대문학 핀 시리즈>는 당대 한국 문학의 가장 현대적이면서도 첨예한 작가들을 선정, 월간 『현대문학』 지면에 선보이고 이것을 다시 단행본 발간으로 이어가는 프로젝트이다. 여기에 선보이는 단행본들은 개별 작품임과 동시에 여섯 명이 ‘한 시리즈’로 큐레이션된 것이다. 현대문학은 이 시리즈의 진지함이 ‘핀’이라는 단어의 섬세한 경쾌함과 아이러니하게 결합되기를 바란다.

<현대문학 핀 시리즈> 소설선은 월간 『현대문학』이 매월 내놓는 월간 핀이기도 하다. 매월 25일 발간할 예정인 후속 편들은 내로라하는 국내 최고 작가들의 신작을 정해진 날짜에 만나볼 수 있게 기획되어 있다. 한국 출판 사상 최초로 도입되는 일종의 ‘샐러리북’ 개념이다.

001부터 006은 1971년에서 1973년 사이 출생하고, 1990년 후반부터 2000년 사이 등단한, 현재 한국 소설의 든든한 허리를 담당하고 있는 작가들의 작품으로 꾸렸고, 007부터 012는 1970년대 후반에서 1980년대 초반 출생하고, 2000년대 중후반 등단한, 현재 한국 소설에서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작가들의 작품으로 만들어졌다.

013부터 018은 지금의 한국 문학의 발전을 이끈 중추적인 역할을 한 1950년대 중후반부터 1960년대 사이 출생 작가, 1980년대에서 1990년대 중반까지 등단한 작가들의 작품으로 꾸려졌으며, 019부터 024까지는 새로운 한국 문학의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는 패기 있는 젊은 작가들의 작품으로 진행되었다.

세대별로 진행되던 핀 소설은 025~030에 들어서서는 장르소설이라는 특징 아래 묶여 출간되었고, 031~036은 절정의 문학을 꽃피우고 있는 1970년대 중후반 출생 작가들의 작품으로 꾸려졌다.

발간되었거나 발간 예정되어 있는 책들은 아래와 같다.

- 001 편혜영 『죽은 자로 하여금』 (2018년 4월 25일 발간)
- 002 박형서 『당신의 노후』 (2018년 5월 25일 발간)
- 003 김경욱 『거울 보는 남자』 (2018년 6월 25일 발간)
- 004 윤성희 『첫 문장』 (2018년 7월 25일 발간)
- 005 이기호 『목양면 방화 사건 전말기』 (2018년 8월 25일 발간)

- 006 정이현 『알지 못하는 모든 신들에게』 (2018년 9월 25일 발간)
- 007 정용준 『유령』 (2018년 10월 25일 발간)
- 008 김금희 『나의 사랑, 매기』 (2018년 11월 25일 발간)
- 009 김성중 『이슬라』 (2018년 12월 25일 발간)
- 010 손보미 『우연의 신』 (2019년 1월 25일 발간)
- 011 백수린 『친애하고, 친애하는』 (2019년 2월 25일 발간)
- 012 최은미 『어제는 봄』 (2019년 3월 25일 발간)
- 013 김인숙 『벚꽃의 우주』 (2019년 4월 25일 발간)
- 014 이해경 『기억의 습지』 (2019년 5월 25일 발간)
- 015 임철우 『돌담에 속삭이는』 (2019년 6월 25일 발간)
- 016 최 윤 『파랑대문』 (2019년 7월 25일 발간)
- 017 이승우 『강탕』 (2019년 8월 25일 발간)
- 018 하성란 『크리스마스캐럴』 (2019년 9월 25일 발간)
- 019 임 현 『당신과 다른 나』 (2019년 10월 25일 발간)
- 020 정지돈 『야간 경비원의 일기』 (2019년 11월 25일 발간)
- 021 박민정 『서독 이모』 (2019년 12월 25일)
- 022 최정화 『메모리 익스체인지』 (2020년 1월 25일)
- 023 김엄지 『폭죽무덤』 (2020년 2월 25일)
- 024 김혜진 『불과 나의 자서전』 (2020년 3월 25일)
- 025 이영도 『마트 이야기-시하와 칸타의 장』 (2020년 4월 25일)
- 026 듀 나 『아르카디아에도 나는 있었다』 (2020년 5월 25일)
- 027 조 현 『나, 이페머러의 수호자』 (2020년 6월 25일)
- 028 백민석 『플라스틱맨』 (2020년 7월 25일)
- 029 김희선 『죽음이 너희를 갈라놓을 때까지』 (2020년 8월 25일)
- 030 최제훈 『단지 살인마』 (2020년 9월 25일)
- 031 정소현 『가해자들』 (2020년 10월 25일)
- 032 서유미 『우리가 잃어버린 것』 (2020년 12월 25일)
- 033 최진영 『내가 되는 꿈』 (2021년 2월 25일)
- 034 구병모 『바늘과 가죽의 시詩』 (2021년 4월 25일)
- 035 김미월 『일주일의 세계』 (2021년 6월 25일)
- 036 윤고은 『도서관 런웨이』 (2021년 8월 25일)
- 037 우다영 『북해에서』 (2021년 10월 25일)
- 038 김초엽 『프레모사』 (2021년 12월 25일)
- 039 오한기 근간
- 040 서수진 근간
- 041 한정현 근간
- 042 이주란 근간

<현대문학 핀 시리즈>는 아티스트의 영혼이 깃든 표지 작업과 함께 하나의 특별한 예술작품으로 재구성된 독창적인 소설선, 즉 예술 선집이 되었다. 각 소설이 그 작품마다의 독특한 향기와 그윽한 예술적 매혹을 갖게 된 것은 바로 소설과 예술, 이 두 세계의 만남이 이루어낸 영혼의 조화로움 때문일 것이다.

이동기

한국 현대 미술에 만화 이미지를 본격적으로 도입했으며, 1993년에 창조한 캐릭터 ‘아토마우스’가 등장하는 일련의 현대 미술 작품들로 알려진 작가이다. 2000년대 세계 미술의 ‘네오 팝neo-pop’적 흐름을 예견한 그의 작품들은 현대 사회의 다양한 요소들을 다루고 있는데, 만화, 광고, 인터넷부터 고전 회화와 추상 미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시각적, 문화적 요소들을 통해 실재와 허구, 무거움과 가벼움, 물질과 정신, 동양과 서양 등 이질적 영역 사이의 복잡한 관계를 암시하고 있다.

베를린의 마이클슐츠갤러리, 암스테르담의 월렘커스 붐갤러리, 서울의 일민미술관 등에서 30여 회의 개인전을 가졌으며, 2011년 베니스비엔날레 부대전시 ‘퓨처 패스Future Pass’, 2005년 후쿠오카아시아미술관의 ‘애니메이트Animate’등의 전시에 참여했다.